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4화)

# 바라보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니 목적지 도착

## 9절 감사하는 생활

-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족해지는 연단
- 2) 사업을 시작하다
-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지난호에 이어서)

### 하나님! 잠잘 때 호호하는 것마저 기도하는 것으로 쳐주세요

한 번은 영모님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 항상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일곱째 전사는 고지식하면서도 한편 순진한 면이 있었던고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땐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잠잘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궁리 끝에 일곱째 전사는 잠자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서도 기도하는 꿈을 꾸게 되고 안절반는 꿈을 꾸면서 한사라도 하나님을 잊어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기도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으며,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확신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 시에는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잠잘 때 호호하는 것마저 기도하는 것으로 쳐 주시고 맥박이 뛰는 것마저도 기도로 쳐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 이래 일곱째 전사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

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마냥 술에 몰탄 듯 물에 술탄 듯 미지근하게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이긴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모님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으며, 하나의 지상명령으로 여기면서 순종했습니다. 영모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임을 아는고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용납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도 기막힌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고로 상대적으로 마귀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전사는 죄라면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 전과 5범의 전직 교사를 개과천선시킴

한편으로 일곱째 전사는 이긴자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주 잘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군 생활 11년간의 퇴직금을 몽땅 사기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장사하는 사람이 각 지역에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하기에, 일곱째 전사는 퇴직금을 몽땅 갖다 주고 경기도 대리점을 뺐는데 며칠 사이로 사무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몇 년 뒤, 일곱째 전사의 돈을 사기 친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금방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전사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뒤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식사로 도우며 퇴직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일곱째 전사는 그 사기꾼에게 얼마나 어려웠

으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며 그 당시 이 사람 역시 너무 어려운 처지라 아주 난처했으니 지금은 발등의 불은 끈 셈이니 이제 그 잃어버린 퇴직금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곱째 전사의 인품에 감동하여 그 사기 친 퇴직금을 꼭 갚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곱째 전사는 “정히 갚고 싶으면 여유가 될 때 갚으세요. 당신이 쓴 것이나 내가 쓴 것이나 매한가지니까 너무 큰 부담감은 갖지 마세요.”하면서 오히려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곱째 전사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은 황송해하며 짙짙매면서 몸 둘 바를 모르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전직이 중학교 교사였으며 사기 전과 5범의 불명에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실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행님과 같은 인격자는 처음 만났습니다.”라며 이후부터는 행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일곱째 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전사는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에 어디서 갑자기 그 돈을 벌어들였는지 없으며 분명히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가지고 온 돈이 틀림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전사는 “이 돈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겠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가슴 쓰린 고통을 받아야 할 테니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매우 어려웠으나 지금은 그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한 번 쓰러짐을 맛보았으니 나로서 끝까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야 되겠어요? 꼭 그 돈을 갚고 싶으면 구멍가게라도 해서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직접 돈을 벌어들여 갚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회한과 감동의 눈물을 흘린 후 그 돈을 도로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멍가게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았으며 그 뒤 조그만 공장을 세워 일약 떼떽한 사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사람이 없으며 누구든지 참된 교육과 은혜를 입으면 개과천선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실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일곱째 전사는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면 그러한 일을 계속 고민하고 아까워서 속상해 하지 말고 얼마나 없으면 그와 같은 짓을 했겠느냐? 내가 쓴 것이 곧 내가 쓴 것이니라고 생각을 돌려먹고 잊어버린 뒤, 이제라도 다시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새 각오로 돈을 버는 것이 현명하지, 돌아오지도 않을 것을 계속 속상해하



### 일곱째 전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

고 싸우게 되면 자신의 피만 더욱 탁해지고 썩어서 늙고 병들게 되며, 결국 죽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일곱째 전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젊을 때부터 갖추셨던 것입니다.

### 일곱째 전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

또 한편으로 일곱째 전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곱째 전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전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따라 다니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한번은 서울 신당동에 산다는 김모 씨의 집을 주소도 없이 찾아가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주택이 워낙 뻘뻘하게 들어선 자리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곱째 전사는 하나님만 믿고 늘 바라보이는 영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결과 그 집을 수월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바라보이는 영모님께서 지시를 해주셨는데 우측을 가리키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라하면 좌측으로 가다보니 어느덧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문패를 바라보니 일곱째 전사가 찾고자 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김씨는 깜짝 놀라며 “여기로 이사 온 후 집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다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 왔느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곱째 전사는 바라보이는 영모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터라 “당신이 이 집으로 올 때 물레 뒤따라 와서는 집을 알아 두었지요.”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신 속에서 사니 한 치의 흠도 없는 온전한 생활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31>

## 지경공덕분(持經功德分) 第十五

이 금강경이 무엇이 좋아서 최고라고 하는가? 바로 석존의 진실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란 바로 거짓이 없고 바른 것만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석존의 참 뜻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이 뜻을 널리 전해야 석존의 뜻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금강경을 가진 공덕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 경을 암송하는 공덕(1)

須菩提 若有善男子善女人  
수보리 약유선남자선여인  
初日分以恒河沙等身布施  
초일분이항하사등신보시  
中日分復以恒河沙等身布施  
중일분부이항하사등신보시  
後日分亦以恒河沙等身布施  
후일분역이항하사등신보시  
如是無量百千萬億劫以身布施  
如是無量百千萬億劫以身布施  
若復有人聞此經典信心不逆 其福勝彼  
若復有人聞此經典信心不逆 其福勝彼  
何況書寫受持讀誦為人解說  
何況書寫受持讀誦為人解說  
하황서사수사지독송위인해설

수보리아,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때에도 또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때에도 또한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을 몸으로 보시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진심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은 전에 것보다 더 뛰어나건만, 하물며 베껴 쓰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해설해 주면 비할 수가 있겠는가?

[해설] 역시 이 글도 기존의 불교에 아침, 점심, 저녁 온갖 보물과 몸을 바쳐서 보시를 많이 하여도, 이 금강경의 참 뜻인 사구계의 진실한 내용을 모른다면 그러한 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 이 <금강경>을 통하여 계속 나오고 있는 이 “受持”라는 낱말은 내가 “받아 지낸다”고 그냥 뜻대로 풀었지만, 그것은 “dhārayati”에 해당되는 말로써, 실제적 의미는 귀로 듣고 기억한다는 뜻이다. 즉 “memorization”이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간직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암기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경”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을 매

개로 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암기 이상의 위대한 신앙행위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의 소리를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인 것이다. - 『도를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p288 인용

須菩提 以要言之  
수보리 이요언지  
是經有不可思議不可稱量無邊功德  
是經有不可思議不可稱量無邊功德  
시경유불가사의불가칭량무변공덕  
如來爲發大乘者說 爲發最上乘者說  
여래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수보리아, 요약하여 말씀하면 이 경은 뜻을 생각할 수도 없고 칭량할 수도 없이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래(석존)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서 말씀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하여 이 경전을 말씀해 주느니라.

[해설] 이 글의 뜻은 원문과 같이 이 경전의 뜻 곧 석존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여도 이 경전을 듣고 보고 거스르지 않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과, 이 금강경의 진실한 뜻을 알아서 남을 위해 올바르게 설명해 줄 때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데, 이 말은 이 금강경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경전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려면 마음(아상과 차별하는 마음)을 비우고 불도를 이루고자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금강경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이라는 말은 범화경에서 나오는 말로서 승(乘)이라고 하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를 말하는 것인데 이 수레의 크기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양의 수레와 사슴의 수레와 큰 소의 수레가 있는데, 양과 사슴의 수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적으므로 소승의 성문과 연각 즉 벽지불승(辟支佛乘)을 의미하며, 큰 소의 수레는 짐을 많이 실는 것에 비유하여 대승(大乘)이라고 합니다.

이 대승은 불도(佛道)를 이룩한 범신불인 미륵불(彌勒佛)을 말하며 미륵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고 참된 이치를 깨달아서 성불하는 것을 대승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의 범신불인 미륵부처님께 귀의(歸依)하여 불연(佛緣)을 맺을 수 있는 인연(因緣)과 공덕(功德)을 쌓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연설(演說)한다고 석존은 강조(強調)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복과 덕이 이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 온갖 보시를 한 사람의 복과 덕보다 더 수승하다고 한 것이며, 더욱이 이 금강경의 사구



경을 암송하는 공덕 - 출처 <https://kknews.cc/fo/b8nspan.html>

계와 이 경의 참 뜻을 알아서 남을 위해 알려준다면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若有人能受持讀誦 廣爲人說  
若有人能受持讀誦 廣爲人說  
약유인능수지독송 광위인설  
如來悉知是人 悉見是人  
여래설지시인 설견시인  
皆得成就不可量不可稱無邊不可思議功德  
皆得成就不可量不可稱無邊不可思議功德  
개득성취불가량불가칭무변불가사의공덕  
如是人等即爲荷擔 如來阿耨多羅三藐三菩提  
여사인등즉위하담 여래아누다라삼막삼보리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 읽고 외워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 (이 경을) 말해 준다면, 여래(미륵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을 다 보시나니 모두 한량없고, 말할 수 없고, 끝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이룰 것이다. 이

와 같은 사람들은 여래가 깨달은 곧 아누다라삼막삼보리(위업이 높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를 얻으리라.

[해설] 그러므로 이 금강경을 올바르게 보고 배우서 그 뜻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준다면 미륵불께서 불연(佛緣)으로 다 보시고 곧 공덕을 얻는데 이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 때나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륵불이 세상에 오시어 불연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는 뜻이며,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기존의 기복신앙(祈福信仰)을 탈피하고 올바른 수행과 정진으로서 불도를 닦게 하여 큰 도를 이루게 하므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석존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明鍾